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마하트 간디 탄생 145주년을 동반 기념하는 행사가 10월 2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남갈사원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우리 스스로의 평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외부 세상의 평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총리 톱상상게)는 10월 2일 비폭력의 상징 마하트 간디의 탄생 145주년과 14대 달라이라마(덴진가 초, 79)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동반 기념하는 행사를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열었다. 이날 2만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1997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윌리엄스(미국, 64)와 2003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이란, 67)가 다람살라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조디윌리엄스는 지뢰 금지 국제 운동에 대한 공로로,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인 시린 에바디는 이란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펼친 공을 높이 인정받아 각각 노벨상을 받았다.

서 보인 삶의 방식과 구현된 가치를 따라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구할 수 있다”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비폭력에 근거한 간소한 생활은 간디가 남긴 평화의 메시지를 회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기념식 당일인 10월 2일

국 순례 방문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밝혔으며, 그 장소는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이 될 것을 내비쳤다.

반면 티베트 망명정부는 관련 외교 특사 회담과 관련해 어떠한 바도 진행된 것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티베트 자치구 내 중국

을 위해 모택동 주석과 북경에서 회담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번 중국 순례 관련 비공식 회담이 성사돼 달라이라마가 내년 중국을 방문한다면 티베트 망명정부의 현안은 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서 10월 13~15일로 예정된 제 14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 남아공 정부의 비자 불허를 사유로 지난 9월 4일 불참을 결정할 상태다. 이에 9월 15일자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14명은 함께 차별 없는 비자 발급을 남아공 제이콥주마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공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성명서는 ‘달라이라마는 더 이상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님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순수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명목으로 회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중국 오대산 순례 비공식 진행 중

역대 수상자 조디윌리엄스·시린에바디 다람살라 방문

아침 AFP 외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국 순례 희망 발언을 하며 망명정부와 중국 관계에 대한 희망을 비쳤다. “현대 중국 방문 일정에 대해 비공식 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달라이라마는, 지난 8월 2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중국인들과 ‘기점의 발견’을 주제로 열린 비공식 회담서 이미 중

공산당원 우잉제 당 부서기의 일반적인 발언으로 “달라이라마가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인도 망명을 청산하고 중국으로 귀국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음을 우려했다. 달라이라마의 중국 방문은 1954년 당시 10대 판첸라마(1938~1989)와 함께 티베트의 문제 해결

티베트 佛미술, ‘팝 아트’로 재탄생

곤카르 계쇄 작품, 홍콩·뉴욕서 전시

뉴욕 타임즈 “제법무상의 현대적 표현...세계 미술계 주목”

티베트 불교미술이 팝 아트라는 현대 미술 영역에서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지는 10월 8일 티베트 현대 미술가 곤카르 계쇄(Gonkar Gyatso·53) 작가를 조명하고,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티베트 팝 아티스트 곤카르 계쇄 작가의 전시회가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며 “그는 불교의 상징을 결합한 도상을 팝 아트로 형상화하며 세계 미술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펄 램(Pearl Lam) 갤러리에서 31일까지 전시되는 곤카르 계쇄 작가의 작품에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안경을 쓴 채 공부에 열중하는 인물’ ‘만다라를 향해 차가운 팔을 내미는 포크레인’ ‘지구 온난화로 녹고 있는 빙하를 트럭과 굴착기’ ‘서구의 문명기기에 포위된 채 중심부에서부터 허물어지는 만다라’ 등 다양한 도상의 팝 아트가 소개되고 있다.

“작가적 시점에서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조명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해보자는 게 이번 홍콩 전시회의 의도”라고 설명한 곤카르 계쇄 작가는 “나는 티베트인 작가로서 현재 중국이 티베트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는 티베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 중앙정부의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에서 곤카르 계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곤카르 계쇄 기획전을 마련한 갤러리 대표 펄 램 씨는 “작가 곤카르 계쇄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를 대중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바로 이런 부분으로 홍콩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즈〉지에 따르면, 티베트 미술에 대한 평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탕카(thangka)와 같은 골동품에만 집중되었다. 그런데 곤카르 계쇄 작가의 등장으로, 티베트 미술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고대에서 현대로 옮겨진 것이다. 더욱이 곤카르 계쇄 작가의 팝 아트는 전통의 향기, 즉 불향을 듬뿍 품고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고대 미술과 현대 미술의 가교로서의 몫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티베트 문자와 불교 상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도상하는 데 노력하고



작가 곤카르 계쇄(Gonkar Gyatso·53)는 ‘미디어로 조합된 조각상(An untitled mixed-media sculpture, 사진 위)’, ‘샹그릴라(Shangri-La, 사진 아래)’ 등으로 티베트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열어보았다.

있다”고 밝힌 곤카르 계쇄 작가는 “티베트의 ‘존귀한 문구’와 ‘고귀한 형상’을 가지고 ‘환경 파괴’ ‘패권 정치’ ‘현대 문명’ ‘침단 무기’ 등과 같은 ‘이탈’과 ‘왜곡’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과정은 항상 조심스럽다”며 “이를 현대 미술의 한 장르인 ‘팝 아트’로서 이해하는 티베트 불교계의 호응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곤카르 계쇄(Gonkar Gyatso) 작가는 1986년까지 중국의 촉망받는 작가로 살았지만,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 기점으로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현대미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매진하며, 티베트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로서 활동했다. 그리고 1992년 중국을 떠나 인도와 유럽을 오가며 ‘불교 팝 아트’라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했다.

〈뉴욕 타임즈〉지는 곤카르 계쇄 작품을 한마디로 ‘제법무상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잔물결에만 머물렀던 티베트 현대미술이 곤카르 계쇄 작가의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곤카르 계쇄 작가의 작품은 홍콩 펄 램 갤러리 전시회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미국 퀸즈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탄 왕족, 인도 성지순례 나서 ‘눈길’

바라나시 사라나트 사원서 보리수 기념식수

부탄의 왕족들이 인도 성지순례에 나섰다. 〈Business Standard〉지는 “부탄 왕자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와 왕비 제선 페마(Jetsun pema)를 비롯해 일군의 왕족들이 10월 9일 인도 바라나시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인도불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인도 성지순례자인 바라나시의 사라나트 사원을 방문한 부탄 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와 왕비 제선 페마.

이에 따르면 왕추크 왕의 일행은 첫 성지순례지로 바라나시의 사라나트 사원을 방문했다. 사라나트 사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전법륜지로 알려진 성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설법 이후 최초의 승단이 생겨났다. 〈Business Standard〉지는 사라나트 사원의 아쇼크 미트라 스님의 말을 인용, “왕추크 왕 내외는 예불을 올린 뒤, 사원 정원에 보리수 묘목을 심었다”며 “인도 불교성지 순례의 첫 방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부탄 왕족 성지순례단을 수행하고 있는 반트 슈바리 스님은 “왕추크 왕은 평소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문하를 찾았던 다섯 비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부다가야를 비롯해 3박 4일간의 인도불교 성지순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캄보디아 불교계 ‘뿔’ 났다

10월 4일 ‘불교연구소’ 지키기 위해 프놈펜 거리 행진

캄보디아 불교계가 프놈펜 ‘불교연구소’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Cambodia Daily〉지는 “500여 명의 스님들이 10월 4일 프놈펜 거리 행진을 하며 ‘불교연구소’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난개발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프놈펜 거리를 행진하며 다국적 기업 난개발을 반대하는 캄보디아 스님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 불교계의 주요 기관인 ‘불교연구소’ 주변은 지난 5월부터 (우나기(NagaCorp)를 비롯해 다국적 기업의 난개발로 존폐위기에 놓였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불교연구소 주변 토지를 매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캄보디아 불교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Justice)는 ‘우나기(NagaCorp)는 국제까지도 기업으로 불교연구소 본연의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해가 될 뿐’이라며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불교연구소 주변의 토지 매매 및 임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 행진을 기획한 ‘사회 정의 실현 승가(Monk Network for Social

오종욱 편집위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공술 추가 강의)

관장: 이준혁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겠습니까?

-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PC
- 4)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의: 010-8558-2345 / 02)2273-8557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이민혁)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